

월간

피그헤드랩

PIGHEAD LAB



30호

2025.1

월간 피그헤드랩은 건강한 삶과 문화를
지향하기 위한 자유로운 이야기를 담은
잡지雜誌입니다.

대망의 30호!
확 리뉴얼!



9 773058 233003
ISSN 3058-2334

김가영_ 인간은 응당 주어진 제 몫을 다해 살아가는가 묻는 존재다
여섯번째 원고

경계에 선_ 인천국제공항 상주직원의 ‘잠’에 대한 소회
첫번째 원고

고마니_ 전라북도 군산 선유도와 장자도
첫번째 원고

X_ 그 곳에 가고싶다 : 물루즈(Mulhouse)
여덟번째 원고

25년 1월부터 피그헤드랩의 콘텐츠 <지금 이시각>은 <월간 피그헤드랩>으로 이름과 구조가 변경됩니다. 매체의 변화와 연초를 맞아 기존 필진들 중 희망자에 한해 이벤트 원고로 구성하였습니다. 필진들은 익명으로 글을 쓰며 타인의 원고를 답습하거나 기존 원고의 성격을 바꿔보기 위해, 혹은 정말 개인적인 이유 등으로 익명 원고를 작성하였습니다.

이번 호는 위의 4인과 더불어 누군가의 스물아홉번째 원고, 누군가의 스물여섯번째 원고, 누군가의 다섯번째 원고, 누군가의 열일곱번째 원고로 이루어졌습니다.

마흔춘기 00

이벤트참여 원고#1

마흔이 되었다. 으앗 내가 마흔이라니~

만 나이를 적용하면 아직 짝 채운 40은 아니었지만, 기존의 한국 나이를 답습하던 문화에서는 이제 마흔이라고 한다.

마흔이라고 신세 한탄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이번 달 지금이시각(아마 25년 1월부터는 월간 피그헤드랩으로 바뀔 것이다)은 재미삼아 이벤트 원고를 추진하기로 하였는데, 그 중에 한 방식이 익명으로 타인의 원고를 오마주하는 것이었다.

그때 떠오른 것이 마주 필진의 <서른춘기 마주>였다. 서른이라는 나이를 기점으로 지난 시간을 돌아보며 자신의 이야기를 서술해 나가는 글이다.

어떤 기념비적인 숫자를 바탕으로 과거를 돌아보는 것은 어쩌면 식상할 수도 있는 것이지만, 그만큼 쓰는 사람에게는 부담 없는 콘텐츠가 아닐까 생각했다. 가령 어디 돌잔치만 가더라도 주인공인 아이의 지나간 생애 정도는 들어줄 수 있지 않는가.

그럼에도 “나 000은 이래왔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다소 쉽지는 않았다. 본문을 쓰며 몇 번이나 쓰다 지웠다를 반복을 하였다. 평소 글쓰기라는 것 쉬운 것 아니야? 라고 까불던 나에게, 정작 ‘나’를 표현 하려니 몇 번의 망설임이 있었다.

생각해보니 근래에는 SNS에 자조적인 글도 써본 지 오래됐다.

그러다 문득 발견한 것이, 언젠가부터 내 글과 표현에 “~인 것 같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다는 것이다.

가령 “A와 B중에서 어느 게 나을까요?”라고 질문을 받으면

“A가 좋아요!”라고 답하면 될 것을 “A가 좋을 것 같아요 / 좋지 않을까요?”라며 무언가 희끄무레한 답을 내놓는다. 문득 생각해보니 내가 근래 직장에서 자주 쓰는 화법이었다.

이것은 마치 선택의 권한을 상대방에게 넘기는 행위이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지만 선택은 내가 해라.

나를 드러내고 내 의사를 주장하는 일이 의외로 많은 품과 기회비용, 그리고 감정적 대립이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느끼는 와중이었다. 언젠가부터 이런 어투를 쓰기 시작했을까. 나는 이것이 어떤 생존의 방법은 아니었을까 추측해본다. 아니 맞을 것이다.

개성.

나의 생각, 나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것은 꼭 위험하다까지는 아니더라도(물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대체로 피곤한 일을 만들어낸다. 개성이 표현되는 것은 언젠가 감정적 대립을 만들어낸다.

어떤 사회이던 한 개인이 나름의 개성을 보유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물론 그 개성이란 게 좋은 것이다 혹은 나쁜 것이다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다만 그 개성이 나를 둘러싼 세계와 조화를 이루는 과정은 마냥 순탄하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경험적으로, 누군가의 개성이 발휘될 때 그가 속한 집단과 잘 어울리는 경우는 별로 못 보았다.

나 역시 돌이켜보면 어렸을 적 “너 참 독특하다”라는 표현을 꽤 들어왔었다. 대체로 그러한 이야기를 듣는 경우는 그리 긍정적인 상황은 아니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것은 말이 아닌 고독한 상황을 만들어 내기도 하였다. 따돌림이라던가.

그러나 성인이 되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다가 문득 알게 된 것이 있었는데, 나 역시 어떤 ‘독특한 아이’를 보며 꽤나 피로감을 느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독특함의 과정들을 내 유년기에서 떠올릴 수 있었다. 썩 좋은 기분은 아니었다.

예술이라는 영역에서는 개성이란 것이 텔런트로 적용된다. 그리고 특별함은 고유의 가치를 만들어낸다.

그래서 예술에 조예가 있거나 업으로 삼는 이들은 이러한 개성을 존중해주는 경향이 있다. 특히나 청년기에는 누구나 특별함과 독특함을 온전히 구별하기는 어렵기에, 대체로 포용을 해주려고 한다. 고마운 분들이다.

그래, 그것은 분명 예술이라는 영역에서는 꽤 중요한 텔런트이기도 하다. 세상을 다르게 해석하거나, 다르게 표현한다는 것. 그러나 더 깊게 들어가면 그것은 특별함으로 나아가야지, 독특함으로만 남아있으면 안되는 것이었다.

나는 이것은 빨리 파악하였다. 독특함이 아니라 특별함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것을. 그러나 그 방법은 생각해내지 못하였다.

그저 도드라지다 보면 나의 독특함은, 언젠가 특별함으로 받아들여질 것이라 생각했다. 이러한 표현에는 당연히 따르는 것처럼, 지금은 흑역사라는 기억으로 자리잡곤 하였다.

관심을 받기 위해 논란을 만들고자 한 것은 의례 괜한 트집잡기로 보이기 좋았다.

타인의 특별함을 시기하다 못해 나를 깎아내리는 짓도 적잖게 하였다. 특히나 예술계라는 것은 늘 사랑을 갈구하는 과정이나 진배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결과가 뚜렷하게 도출되는 것이 아니기에 더더욱 사람들의 관심에 목말라 하는 것이다.

특히나 대부분 커리큘럼을 통해 배출되듯, 농장에서 찍혀 나오듯 예술이란 것을 시작한 이들은 비슷한 혼란을 겪고는 한다. 직장인은 월급이라도 들어오지만 예술활동은 피드백이 확실한 것이 아니기에 많은 혼란 속에서 자충수를 두기도 한다. 적어도 나는 그랬다.

그렇게 한 10년 가까운 시간을 보낸 것이다. 지금까지 살아온 숫자로만 표현하면 약 25%이고 결코 짧은지는 않다. 그 모든 기억이 실패라고 생각은 하지 않는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나의 독특함을 특별함으로 발전시켰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확실하다는 것이다.

지금도 누군가를 만나면 물어보고 싶은 충동이 있다. 그때의 나는 특별했나요? 나의 시도

들이 아주 조금이라도 의미가 있었을까요?

내가 상상했던 아주 특별한 예술가는 되지 못한 채 시간은 흘러갔다. 대책 없는 예술가의 삶에서 다른 방향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였고

마침 우연히 누군가가 불러준 일자리를 기반으로 나는 돈을 벌기 시작했다.

다행히 내가 지향하는 길과 크게 다른 것은 아니었기에 적당히 내가 바라는 것을 적당히 타협하며 생활해 나갈 수 있었다.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그럼에도 결국 사회생활은 사회생활이더라. 다시 처음의 이야기로 돌아가

나의 개성을 두고 고민하는 시간의 나날이었다. 사랑하지만 피곤하게 구는 것과의 관계, 표현하기 조심스럽지만 이제는 감당하기 어려운 오래된 애완동물과의 관계처럼.

마음 한구석으로 ‘먹고 사는 일이 다 그렇지’ 라고 생각하면서

당연한 듯 나의 자의식을 한 구석으로 보낸다는 것은,

간간이 내가 존재해온 방식의 의문을 품는 과정이기도 하다. 나의 자의식은 어디에 존재해야 하는 것일지, 끝나지 않는 물음만 반복하는 체로

적어도 그 대답을 유예하는 시간들만 지나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그렇게 나쁘게만 볼 것도 아닌 게,

이러한 시간이 쌓이고 일종의 생활화가 되면서 어떤 마음의 여유 같은 것이 생겼다.

아이러니하게도 성미가 급하고 다소 감정적이라는 얘기도 많이 들어왔는데

관계를 의식하고 거리를 조정하는 습관들 사이에서 의도치 않게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때로는 포기도 하는 그런 훈련이

정말 타의적으로 몸에 베어가는 것이 또 있다. 그래 포기가 맞다.

장점이라면 장점일지, 길들여진다면 길들여지는 것인지.

“이렇게 된 거, 넘어진 김에 쉬어가지” 이러한 자세가 나의 가치관 어디선가 생겨나고 퍼져 나간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스스로가 너무 괴로울 수도 있겠지.

글을 쓰다 보니 사실 이것을 온전히 ‘사회생활 때문’ 이라고 하기도 좀 그렇다. 복합적인 요인도 있을 것이다. 숫자로서 청년기와 중장년을 구분해 놓은 것은 분명 이유가 있었다. 무엇인가가 한순간일지 순차적일지, 아무튼 점점 식어간다. 무용담과도 같은 이야기이지만 20대 첫 미술관 인턴을 시작했을 때 그렇게 밥 먹듯 야근을 해놓고도 퇴근을 하면 바로 작업실로 향했다. 저녁 9시에 작업실 문을 열고서는 ‘두시간 정도 작업을 할 수 있겠군’ 하며 바로 붓을 잡았다. 그 와중에 전시도 하고 레지던시 프로그램도 참여하고, 반년 정도는 대학원과 병행하기도 하였다.

지금은 퇴근을 하고 들어오면 녹초가 되어 들어온다. 솔직히 지금의 업무가 많이 힘든 것도 있기는 하다.

그러다 보니 근래에 들어서는 피그헤드랩이고 지금이시각이고 생각할 겨를도 없었다. 과거의 체력과 지금의 체력차이도 분명 큰 이유일 것이다. 지금은 혼자 사니 집안일도 해야 하고 체력관리를 위해 운동도 짬짬이 해야 한다.

생각해보니 식어간다고 표현하기 보다는 기회비용이 점점 제한된다가 맞겠다. 무엇인가를 잃는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하며, 감정이나 신체나 제한된 에너지를 느끼기 시작하면서 나 역시 무엇인가 맞춰가야 하는 것이다. 자의적이던 타의적이던 나는 이제 효율을 갖춰야 하고 선택을 해야 한다.

조금씩 밸런스를 맞춰가기 시작한다. 신체보다 감정이 먼저 조금씩 정리되어 갔다. 다만 더 이상 뜨겁지 않음이 반드시 차가움으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다. 여전히 나는 충동과 욕망을 느끼고 있고, 여전히 내 안의 자의식과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그저 적당한 온도를 유지하는 것을 생각해본다. 아마 피그헤드랩도 포함하여, 나의 삶이 갖는 소소한 변화들에 한 요인일 것이다. 꼭 현명해야 하거나 철두철미할 필요는 없겠다. 적당한 온도에서의 나를 유지하기. 그게 어떤 과정의 목표이지 않을까?



인간은 응당 주어진 제 몫을 다해 살아가는가 묻는 존재다

김 가 영
책과 그림을 읽는 사람



선거권이 생기고 처음 맞는 대선이었다. 그 당시 나는 후보자들의 티브이 토론회를 빠짐없이 챙겨 보는 열혈 유권자였다. 심사숙고 끝에 그 활화산 같던 후보에게 표를 주었고, 나 같은 사람이 많았던 모양인지 그가 당선이 되었다. 한 편의 드라마와도 같았던 대선 레이스였다. 내가 뽑은 첫 대통령이였다. 자신이 선택한 후보가 당선되었다는 사실이 기쁘기도 했었다. 생각전대 그 시절에는 인간에 대한 낭만이 있었던 것 같다.

작년이던가 어느 독서 모임에서 유시민 작가의 책에 대해 얘기 나눌 기회가 있었다. 나는 작가 유시민은 크게 좋아하지 않는다. 일종의 과잉 같은 것이 느껴질 때는 영 불편한 것이었다. 그래도 그가 쓴 책은 제법 읽은 축이다. 불편하다고 말하면서도 그 행간의 뜨거움이 때로 나를 흔들었기 때문이다. 사실 그런 종류의 뜨거움은 유시민이 아니고서는 만나기 힘든 것이기도 했다.

그날 나는 이런 말을 했다. 활화산 같던 사람이 대통령이고 유시민이 장관이던 시절에 우리는, 인간의 인간성을 믿었다고. 이 모든 갈등과 분열은 더 나은 의사 결정으로 향하는 필수 불가결한 과정이며, 이것을 통해 역사는 진보하고 인간은 결국 진전한다는 믿음이 있었다고.

폭력과 낭만의 시대이면서도 결코 인간을 포기하지 않았던 마지막 시절이었다고.....

이데올로기와 신념에 대해 고민하던 시절. 대의와 명분이 사람을 움직이던 시절.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한 환상이 있던 시절은 이제 다 지나갔다. 지금의 우리는 부동산에 미쳐 있는 파편화된 개인이 되어 인스타 피드에 박제된 디지털 이미지로 랜선을 구천처럼 떠도는 픽셀 입자로 존재할 뿐이다.

나는 이제 인간의 결정이 진전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기술의 발전이 마치 인간과 인간성의 진보인 것처럼 여겨지는 허상에도 속지 않는다. 인간은 진화했지만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 눈앞의 작은 이익에 목숨을 걸고 제 손톱 밑의 가시에 우주가 무너지는 속성을 알고 나면, 인간은 호오의 대상이 아니라 원래 그저 그럴 뿐이라는 사실을 엄정하게 받아들여지게 된다. 인간은 원래 그렇다. 때로 너무, 징그러울 정도로 너무 그렇기도 해서 문제 기는 하지만 말이다.

낭만의 시대를 지나고 낭만을 소비하는 나 자신을 인스타에 전시하지 않으면 죽는 병에 걸린 이 시대에도, 대선은 때마다 찾아온다. 나는 여전히 후보자 토론회를 빠짐없이 챙겨보며 심사숙고해 투표를 한다. 내가 뽑지 않은 대통령들은 모두 감옥에 갔다. 곧 내가 뽑지 않은 또 한 명의 대통령이 감옥에 갈 것이다. 그는 원래 그랬다. 때로 너무, 징그러울 정도로 너무 그렇기도 해서 문제였다. 문제를 일으킨 사람은 책임을 진다는 당연한 사실을 측근 무속인이 알려주지 않았던 모양이다.

낭만과 선의, 진보와 진전 모두를 회의하면서도 나는 또 광장에 나섰다. 희망과 사랑은 낮간 지럽다. 연대와 책임은 부동산 앞에 여지없이 무너질 테다. 그럼에도 길을 나서는 이유는 무엇인가. 영화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에 나오는 말로 대신하겠다.

“내가 용납할 수 없는 것들을 마주할 수는 없다. 모름지기 인간이라면 영혼에 모험을 내맡긴 채로 이렇게 말할 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 나도 이 세상의 내 몫을 다하겠어.”

너무나 그저 그런 인간으로서라도 우리는, 세상에 태어나 주어진 몫이 있는 것이다. 인간은 응당 주어진 제 몫을 다해 살아가는가 묻는 존재다. 그 물음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지금, 모두, 광장에서 있다. 🐷



내가 용납할 수 없는 것들을
마주할 수는 없다



모름지기 인간이라면



영혼에 모험을 내맡긴 채로
이렇게 말할 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 나도 이 세상의 내 몫을 다하겠어.'

이미지_영화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중,
영화 이미지 및 자막의 저작권은 파라마운트 밴티지, CJ ENM MOVIE, 해리슨 앤 컴퍼니 등
저작권자에 있습니다.



경계에 선

인천국제공항 출입국의국인청 심사과 재직

인천국제공항 상주직원의 ‘잠’에 대한 소회

나는 어디에서 잠자는 것인가?

어제는 전일근무(9시 출근, 익일 9시 퇴근, 즉 24시간 근무)였다.

유난히도 추운 겨울날 아침 패딩 옷섬을 두 손으로 잔뜩 여며 매며 공항이 주는 따뜻한 온기 속으로 얼른하고 들어가, 꼬박 25시간 만에 오늘 아침 다시 그 길을 통해 추운 공기를 콧속 가득 마시며 퇴근한 것이다.

어제 오전 9시 스케줄을 시작으로 23시 공식적으로 업무를 마감한 후 익일 4시 스케줄을 위해 쪽잠을 청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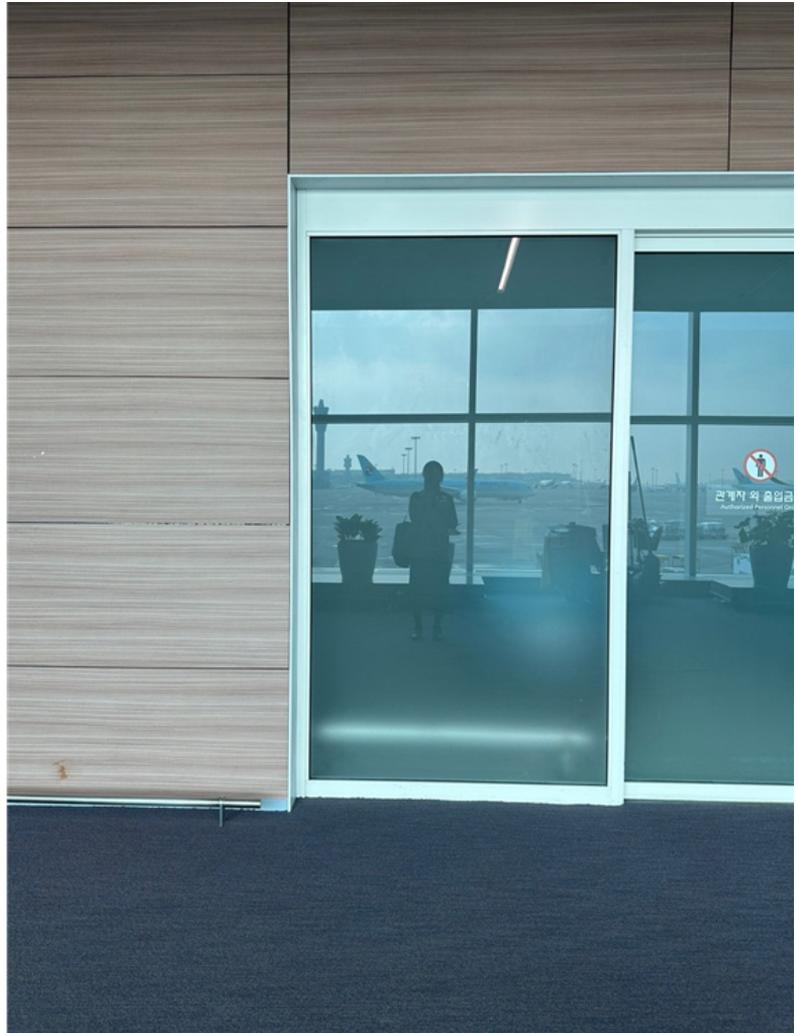
공항에는 상주직원을 위한 수면 시설이 마련돼 있고 우리는 고된 일정을 마치고 잠시 몸을 누인다.

잠이라고 해야 할까, 잠시 눈을 붙이는 것에 그친다.

그러다 보니 이 일을 시작하고 만 3년이 다 돼가는 동안 쪽 수면장애에 시달리게 되었고, 이는 대다수의 야간 교대 근무자들이 겪고 있는 증상이기도 한 것... (다른 길로 새기 전에)

어제는 일이 너무 힘들었던 날인 탓에, 4시간 정도의 쪽잠을 꽤나 깊게 취한 날이었다.

그리고 퇴근해 한숨 더 자고 이렇게 글을 잡고 있는 이 순간,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다.





여전히 지금 내가 들어와있는 세상은 공항 속이다.
공항은 저기 10km 떨어져있지만, 그가 뺨치고 있는 세력은 여전히 내 영역을 감싸안고 있다.

일 시작한지 얼마 안 됐을땐, 공항에서 잠을 청하는 밤이 그토록이나 억울하고 답답하곤 했는데,
이젠, 이 집이 그집이고 그집이 이 집 같으니.....

난 어제 어디서 잔 것인가? 🐼

그 곳에 가고싶다 : 물루즈(Mulhouse)



X

작가 & 전시기획자

“2008년 독일 자부리켄에서 기차를 타고 프랑스 물루즈(Mulhouse)에 도착했을 때 프랑스에 온 느낌보다는 뭔가 유럽에 어느 다른 도시와도 비슷한 거 같았어요.

독일 프랑크푸르트 프랑스 대사관에서 쉥겐 비자(Schengen Visa)를 받고 자부리켄에 가는 기차에 몸을 실었을 때 옆 좌석에 독일 브레멘(Bremen) 출신의 중년 여성 분이 앉아 있었어요. “아네트(annette)” 라는 이름을 가진 여성으로 그녀는 남편이 프랑스 사람이고 파리에 오래 생활했다고 얘기했어요. 남편은 지질학자로 어디에 석유가 있는지를 알려주는 아주 능력있는 사람이라고 하더군요.

여행하는 도중 내내 나와 여러 얘기를 나눴는데 마흔이 넘은 아직까지 그 당시 그녀가 나를 바라보면서 한 말이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그녀는 당시 나에게 프랑스로 가서 유학을 하면 독일 남자친구와 당연히 헤어질 거라고 얘기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나에게 이런 말을했죠. “넌 모르지만 난 사람을 보면 냄새를 맞을 줄 알지.....”

프랑스 시립예술학교에 입학되면서 알자스(Alsace) 주의 물루즈(Mulhouse)라는 도시를 알게 되었어요. 조그마한 시립 미술학교로 지금은 스트라스부르그(Strasbourg)의 아르 데 꼬(Art decoratif) 와 합쳐서 알자스 주립 미술학교(HEAR) 가 되었어요. 1 학년으로 입학 후 학교 친구들을 사귀게 된 우연한 계기는 제가 한국에서 대학생 시절 다움카페 영국팝 회

원으로 활동하면서 여러 팝음악을 들었는데 서로 코드가 같았습니다. 특히 슈게이징 사운드(Shoegazing sound) 밴드 스톤 로지즈(Stone Roses) 를 좋아했는데 제 프랑스 친구들과 소리 예술(Sound Art) 교수 이방 에띠엔느(Yvan Etienne)는 미국 예술 대학교 출신 밴드 소닉 유스(sonic youth) 부터 영국 밴드 큐어(Cure), 스피리추얼라이즈드(Spiritualized), 사이키 TV(psychic TV) 등을 좋아했습니다. 서로 코드가 맞았고 전 당시 독일에서 남친 취향과 직업으로 한창 테크노만 듣다가 제가 중고딩 시절 듣던 음악을 다시 같이 듣게 되면서 좋았습니다. 방과 후 술도 같이 마시고 여러 얘기를 나눴고 주말에는 같이 차를 타고 스위스 바젤, 취리히에 공연도 보러가고 전시도 보면서 격없이 지내게 되었죠.

물루즈는 완전 전통 프랑스 도시라기 보다 알자스 로렌 지방 특유의 국경 도시로 사람들이 약간은 독일적이며 스위스적이었습니다. 프랑스 특유의 불평하는 성격보다는 알자스 사람들은 문제가 있으면 해결하는 스타일이고 독일처럼 크리스마스 마켓도 광장에서 열었어요. 또 화이트 와인 ‘리즐링(Riesling)’ 과 ‘슈크루트(Choucroute)’, ‘따르트 플랑베(Tarte Flambée)’ 가 지역 특산물로 2년 내내 열심히 마시고 먹었습니다. 약간 독일 요리에서 영향을 받은 음식이라서 제게는 생소하지도 않았고요.

학교에는 1년에 한 번 ‘트랑슈 드 케 (Tranche de quai)’ 라는 오픈 행사가 있는데 학생들이 워크샵 후 여러 예술 작품을 작가들과 같이 만들어서 보여주는 행사입니다. 음악가, 삽화가, 개념 예술가 등 다양한 작가가 초대되어서 일주일 동안 학생들과 워크샵을 하는데 거의 수업이 없고 워크샵만 해서 놀기에는 딱 좋은 기간이었어요.

전자 음악에서 다시 락 음악을 들으는 계기로 처음 1년은 미친 듯이 락 음악만 들으며 여러 프랑스 친구들과 여행과 공부 특히 예술이 뭐 인지? 삶이 뭐 인지? 를 고민하고 토론했어

요. 점점 내가 행복해진다는 것을 느꼈고 이게 나에게 잘 맞는다는 느낌이 들었죠. 당연히 자연스럽게 아네뜨가 예견한 것처럼 독일 남자 친구와 헤어졌지만 소송 문제와 우울증 등 여러 고비가 있었습니다.

내 프랑스 친구들은 나보다 나이에 3살 정도는 어렸고 20대 초반의 귀엽고 초롱초롱한 얼굴들을 하고 있었어요. 우리 모두 예술을 좋아했고 한 편으로는 우리가 아직 누구인지를 잘 모르는 그런 꿈 많은 성인이었죠. 뒤샹을 비판하고 폼비두의 ‘Uppie’ 작가들을 비판하고 프랑스 예술의 매너리즘과 미국 예술을 돈 치먹는 페어를 비판하며 무정부주의적 예술을 꿈꾸는 내 친구들은 지금 어디서 뭐하고 있을지 궁금합니다.

학교에 초대된 수 많은 작가 중에도 연이 닿은 작가가 있었는데 바로 뱅상 모제(Vincent Mauger)였죠. 2009년 여름 제가 로렌의 한 아트 인 레지던시 기관에 인턴으로 일하러 갔는데 거기서 다시 얼굴을 봤고 그 때 처음으로 같이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뱅상과 그의 아내 마농과 친분을 쌓게 된 후 항상 집에 놀러 오라고 말을 건넸죠. 한국 들어오고 휴가 차 2016년 프랑스를 방문했을 때 프랑스 낭뜨(Nante) 근처의 집에 초대받아 같이 하루 정도 시간을 함께 했었죠. 아직까지도 연락을 같이 하는 데 벌써 16년이 지났네요. 뱅상과 마농이 이제는 프랑스의 주요 현대 예술가로 자리잡아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한창 놀기 바쁜 시기에 연애도 엄청 많이 해서 한 때 물루즈 여름 음악 페스티벌에 놀러 갔었는데 전 남친과 현 남친이 겹치는 불상사가 발생하기도 했었어요. 또한 프랑스 작가에게 말실수해서 이상한 꼬리표가 붙어 학교를 옮기기도 졸업할 때까지 딱지가 붙어서 따라다니적도 있었어요. 다 지금 생각하면 별거 아닌 일였고 재미있던 추억이었어요. 쿼대높은 프랑스인에게 개념 예술과 데카르트적 사고방식을 배웠지만, 항상 2%가 부족했어요. 저는 바로 이 것이 이 세상은 “하나(eness)” 라는 것이라는 걸 한국 오고 수 십년이 지나 깨달았어요.



2009년 물루즈 워크샵 때 작가 미셸 지루(Michel Giroud) 와 나

아직까지 물루즈를 생각하면 안타까운 일은 나의 유일한 여자사람친구인 마리(Marie)가 나와 절교하면서 더 이상 연락이 안되는 일이지요. 긴 머리에 채식주의자이고 고양이를 좋아하는 마리는 부모님이 음대 교수, 피아니스트로 어려서부터 음악을 좋아한 친구였어요. 동생은 바로크 음악을 전공했고 마리는 피아노와 첼로를 좋아했었지만 중학교때부터 고딕 음악과 실험음악을 좋아하고 책을 읽는 것을 좋아했어요. 물루즈 학교에서 유일하게 영어를 하는 친구였죠. 나와는 속옷까지도 같이 입는 친한 친구였는데, 지금은 프랑스 한 미술관 사서로 일하고 있다고 알고 있어요. 남자친구 아드리앙과 헤어지면서 안 좋은 시기에 나와도 연을 끊게 된 것이었죠. 아직도 고양이를 기르며 브장송(Besançon)에서 살고 있다고 알고 있어요.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2009년 몰루즈 미술학교 소리 예술 친구들과 교수 이방 에띠엔느

2009년 몰루즈 예술학교 트랑슈 드 케 프로젝트 '비키니 걸(Bikini girl)'



본 면의 2개와 앞 면의 1개의
사진은 파슬칼 비상(Pascal
Bichain)에게
저작권이 있습니다.

2013년 졸업반 때 다시 물루즈에 와서 전시를 열게 되었어요. 신진 예술가 후원하는 전시에 뽑혀서 르노(Renaud) 와 시암(Siam) 의 주관으로 이들의 아파트 내부에 직접 설치를 하게 되었어요. 예전 학교 친구들은 아무도 오지 않았지만 뭔가 물루즈라는 도시를 마무리 하는 전시 같았어요.

2010년에 파리에서 전시를 하고 학교를 국립 예술학교인 부르즈(Bourges)로 편입하면서 제가 보는 예술계에 대한 세계관도 넓어지게 되었지요. 파리쪽 출신 작가들의 작품을 많이 보면서 내가 가야되는 예술이라는 것이 자기 표현에서 나와서 다른 주제를 수용해야지 성장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3년 동안의 고민은 방황과 여러 생각을 가져왔고 다시 물루즈를 찾았을 땐 아마도 내가 많이 바뀌었던 거 같았어요. 이 모든 생각은 나의 과거를 묻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고 그래서 <Bury ME> 작품을 2013년 여름에 브장송 퍼포먼스 페스티벌에서 보여주고 겨울에 파리 한 인 갤러리 풍데자르에서 전시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돌아가도 저는 아마도 비슷한 삶을 살지 않을까? 그 때와 난 별로 바뀐 건 없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다 모든 과거는 여러 감정으로 얼룩지어도 뒤돌아서서 보면 아름답게 빛나는 거 같습니다. 🐼



2013년 물루즈에서 르노와 나 (유리작품 : 프랑스 알자스 작가 작품)

〈Bury Me〉, 2013 프랑스 브장송 예술학교 퍼포먼스, 파리 퐁데자르 갤러리 전시



사소한 감정도 결코 무시하며 살아갈 수 없던 나는

이벤트참여 원고#2

사소한 감정도 결코 무시하며 살아갈 수 없던 나는 흔하게 주위를 둘러보곤 한다. 어딘가에 나를 이해하는 이들이 모여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그러나 주위의 공기는 늘 적막했고, 그 적막 속에서 나는 스스로 위로하고, 달래고 깨어진 구름 아래에 눕는다. 그 아래서 처참한 물골로 자빠져있지만 부끄럽다는 감정은 알지 못했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그 공허함을 품고 사는 일이 익숙해졌다. 무딘 칼날 아래서도 번데기를 찢고 나비는 난다.

어느 날 전혀 알지 못하는, 얼굴도 목소리도 모르는 이들과 함께 모인 자리에서 묘한 감정을 느꼈다. 모두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었지만, 그 안에 묻힌 공통의 불편함이 틀림없이 있었다. 무언가 배제되었다는 것을 알리는 듯한 제스처 뒤에 감춰진 미묘한 경계선이 보였다. 오히려 그것을 강조하는 방법이 아닐까 하는 인상으로, 그 경계는 사람을 가르며 가슴 오른쪽 한 편 모퉁이를 불편하게 만들었다. 결국 나는 그날 그와 함께 그곳에 있으면서도 어디에도 속하지 못했다.

가끔 나도 악을 쓰고 깃발을 흔든다. 하지만 다가설 때마다 돌아오는 차가운 메아리는 나를 쓰러지게 만든다. 모든 물체와 가까이 있는 것이 힘든 일이다. 그러한 사실은 나를 고등하고 저능하며 저열한 자동 기계장치로 만들었다. 공감이나 연결을, 충전을 원하면서도, 그것이 또 다른 벽이 되어 나를 밀어내는 순간. 그것은 어쩌면 그것들이 나와 같은 무질서 속에 있다는 증거일지도 모른다.

자리에 남아 나는 테이블에 엎드려 울었다. 무언가 잃어 다시는 찾을 수 없는 기분. '우리'

라는 오라가 너무나 갑갑하다. 투쟁이 맺은 열매가 특정 누군가의 이름으로 포장되는 일이 왜 반복되나. 그것이 자연스러운 일일까? 아. (바로 그)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기 위해 선취하는 행위 자체는 자연스러운 일인가? 나는 여전히 고민 속에 있다. 순전한 즐거움을 추구하는 척하면서도 어디선가 정치적으로 충분한 포지션을 선점하려는 욕망이 느껴지는 표정(들). 인스타그램머블하게 창조적이거나 그렇다고 여겨지는 이미지, 다수의 취향에 종속된 언어를 퍼뜨리며 스스로 아름답게, 정성스레 포장하는 문장들. 그들은 한 편의 무한한 세상을 보여주었지만 동시에 나는 혼돈에 갇혀있다. 어디가 진짜인지, 무엇이 시작이고 끝인지 알 수 없는 서사 속에서 길을 잃은 것처럼 앉았다 서다 반복한다.

무한과 연대는 어렵고, 불편한 것이다. 끝없이 이어지는 선, 다다를 수 없는 목표, 그리고 그것을 붙잡으려 애쓰는 누구. 머릿속에 그려지지 않는 무언가를 이해하려 할수록 손에서 미끄러진다. 그것이 직관적으로, 또는 실체로 존재함을 이해하거나 인정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었다. 주변이 폐쇄된 나 자신을 바라보는 것만으로 벽차다.

또다시 혼자가 되었다. 사람들이 떠나고 난 자리에 홀로 누워 넓고 흔들리는 공간을, 흰 천장을 바라본다. 죄책감.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나를 마주할 때, 그 안에 숨고자 하는 욕망을 버릴 수 없다. 결국, 아름다운 나로 남고 싶은 욕구. 숨고자 할수록 더 선명한 아이러니.

어김없이 아침이 밝으면 태양은 떠오르고, 모든 것을 비추는 빛이 내가 엮드린 책상, 낡은 집 안으로 쏟아진다. 시간이 흐르면 모든 것이 부수고, 다시 만드는 일을 반복한다. 하지만 그 안에 살아 있는 작은 불씨는 여전히 어떠한 형태로 남아 있었다.

신화나 알레고리로 남은 숭고한 서사들 또한 그 경계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다. 논리적인 이야기를 가장한 감정적인 발화들이 뒤섞이고, 그와 동시에 그에 대한 질투가 피어난다.

지금도 나는 아침이면 빛을 본다. 다시금 준비한다. 이 텅 빈 하루 속에서 끝없는 경계에 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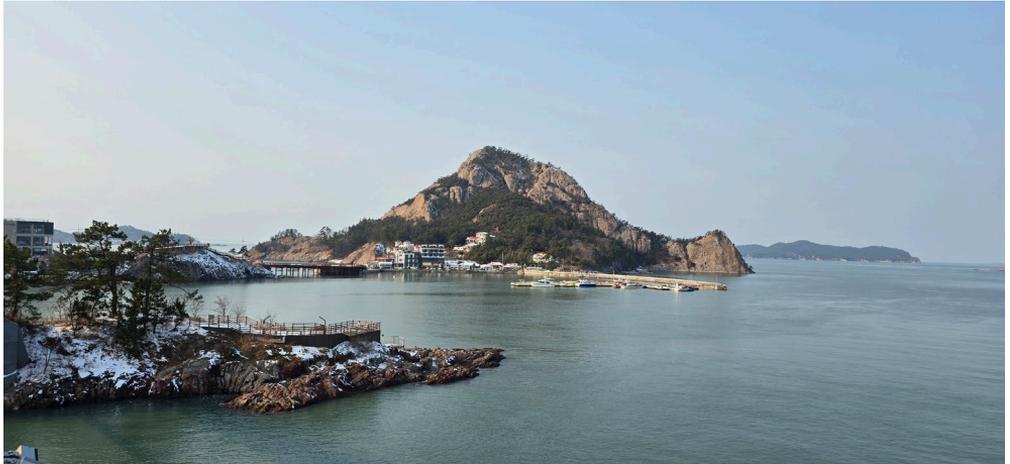
고 마 니
혁명가

전라북도 군산 선유도와 장자도



토요일, 전라북도 군산에 지인 결혼식이 있어서 먼 거리를 가는만큼 가볼만한 곳을 둘러보기로 했다.

초원사진관, 일본가옥, 철길마을, 이성당 등 이전에 가봤던 곳 말고 새로운 군산을 체험하고 싶었다. 그래서 택한 곳이 비응항과 새만금 방조제를 지나면 나오는 선유도(군산)와 장자도였다.



선유 옥돌해변에 바닷물 소리는 다른 해변과 달리 물이 빠질 때 조약돌끼리 부딪히는 소리가 이색적이었다.

장자도는 호떡을 먹으려는 자와 호떡을 팔려는 자의 대치로 정신이 없었다. 마치 누군가를 체포하려는 자들과 지키려는 자들 같다고나 할까?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바라보는 장자 스카이 워크 옆 절벽에 있던 두 노부부의 동상은 그간 겪어온 세월에 모든 게 부질 없다는 듯 바라봄이 참 인상적이었다. 🐷





김밥

이벤트참여 원고#3



만만한 음식은 무엇일까? 아마 분식이지 않을까? 거리 어디에서나 분식집을 볼 수 있다. 그 만큼 흔하고 자주 접할 수 있는 음식이다. 아마도 학생이나 직장인들은 하루 한끼정도는 분식을 먹는 사람들이 꽤 있을 것 같다. 쉽고 빠르게, 거기다 저렴하지만 맛있고 든든하게 먹을 수 있다. 이렇게 가성비 있는 먹거리로 우리들 생활 속 깊숙하게 들어와 있다. 언제든 부를 수 있는 편한 친구 같은 음식이자, 서민음식의 대명사이다. 그래서 인지 분식집은 선거철 서민 친화적인 정치인들이 가야 하는 필수 장소가 되어 버렸기도 하고, 아무리 값비싼 물건을 파는 명품샵이 즐비한 동네라 할지라도 분식집이 하나 정도는 꼭 있다. 그만큼 누구나 즐기고 만만한 음식이다.

분식집 메뉴 중에서 김밥은 가장 기본으로, 밀가루로 치중 된 영양 불균형 메뉴들 사이에서 5대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할 수 있는 소중한 음식이다. 김-무기질, 밥-탄수화물, 계란-단백질, 시금치-비타민, 단무지-비타민, 당근-비타민, 햄-단백질과 지방, 참기름-지방으로 저렴하게 영양을 챙길 수 있다.

나의 경우 어릴 적에는 김밥은 그렇게 좋아하는 음식은 아니었다. 김과 야채들이 싫었다. 편식이 심한 아이였다. 두세 살 때 만해도 김에 밥을 싸서 밥 한 그릇 똑딱 야무지게 다 먹어버리는 아기였다고 한다. 한번은 김이 맛있어서 마구 집어 먹다가 김이 입천장에 붙었는데 그걸 떼내지 못해서 울고 불고 난리였다고 한다. 그 후로 김을 먹지 않았다고 한다. 지금은 없어서 못 먹지 편식하는 음식은 거의 없어졌고, 김 트라우마도 극복했다. 일주일에 한번 이상은 점심으로 김밥을 먹는 사람이 되었다. 혼자 작업하는 사람이라 간단하게 혼밥을 해야 하는데 이때 편한 음식이 김밥이다. 그래서 새로 생긴 분식집을 탐색하거나 토속적인 분위기의 분식집은 찾아다닌다.

동네마다 유명한 분식집이 하나쯤은 있다. 하교길의 분식집, 퇴근하고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같이 나이 들고 추억을 쌓는 그런 가게 말이다. 내가 살고 있는 동네에는 도시계획에 의해 새로 생긴 동네라 프랜차이즈 식당은 종류별로 골라서 갈 수 있는 편이만 그런 역사를 있는, 앞으로 역사를 쌓아 갈 분식집은 없다. 아쉽지만 그래도 내 취향 가게를 찾아내 고야 마

는 사람으로서 작년부터 가끔 가는 분식집과 메뉴 소개한다.

위의 사진은 흡사 오므라이스 같아 보이지만 철판 계란말이 김밥이다. 집에서 차로 18분 정도 떨어진 친천 읍내에 있는 분식집에서 먹었다. 예전에 읍내 불일 보러 나갔다가 혼자서 점심먹을 만한 식당을 검색하면서 알게 된 곳이다. 어느 평범한 읍내 시장근처 1층 상가에 있는 곳으로 외관은 허름했지만 간판과 내부는 깔끔해 보였다. 유리창에는 어른 손글씨로 쓴 메뉴가 있었는데 왠지 믿음이 가는 글씨체였다. 메뉴로는 떡볶이와 김밥 순대, 오뎅이 있었고, 특이하게 라면은 팔지 않았다. 식당에서 라면을 잘 사먹지 않고, 떡볶이와 김밥을 선호하는 나로서는 좋았다. 주요 메뉴에 특화된 느낌이 들었다. 그렇다고 김밥의 종류가 프랜차이즈 분식처럼 다양한 건 아니었다. 기본 김밥인 야채 김밥과 꼬마 김밥이 있었고 기본 김밥에서 변화를 준 계란 폭탄 김밥, 철판 계란말이 김밥이 있었다. 그 중 철판 계란말이 김밥이 다른 데서는 먹어 볼 수 없는 메뉴인 것 같아서 주문해 보았다.

주문하면 즉시 부부사장님께서 김밥을 만들어 주신다. 여자 사장님이 김밥을 말기 시작하면, 남자 사장님이 기름칠 된 달궈진 철판에 계란물을 붓는다. 여자 사장님이 김밥을 다 말고 남자 사장님께 전달한다. 남자 사장님은 김밥을 반쯤 익은 계란물 위에 올리고, 돌돌 만든다. 이렇게 만든 김밥을 접시에 올리고 김밥 한쪽 끝에 계란말이 철판 옆자리 떡볶이 판에서 잘 익은 밀떡볶이와 소스 한국자를 같이 곁들인다. 멸치육수에 끓인 후추향이 강한 오뎅 국물도 같이 서빙 된다. 반찬은 각자 테이블에서 셀프로 단무지를 먹을 수 있다. (편의상 반말로 썼다.) 먼저 계란이 말린 김밥을 하나 먹어 본다. 기름기를 머문 따스운 계란말이와 심심한듯 하지만 아삭한 속재료를 품고 있는 김밥의 만남. 누가 먼저 시작한 걸까? 진심 고맙다! 갓 만든 계란말이와 밥은 만남은 정말 진리이다. 계속 먹다 보면 이 맛이 밋밋하게 느껴질 수 있다. 그렇다면 같이 나온 떡볶이 소스와 김밥을 같이 먹어본다. 매콤한 음식과 계란도 역시 거스를 수 없는 조합이다. 베스트 짝궁-오돌뼈와 계란찜, 김찌찌개와 계란말이 같이 말이다.

집에서 이곳까지 오는 대중교통이 없어서 운전해서 와야 하지만, 맛은 기본이고 좋아하는 김밥과 떡볶이를 같이 먹을 수 있고, 한끼 식사에 4000원이라는 부담스럽지 않은 지출에 현명한 소비인 것 같아서 일부러 주기적으로 온다. 식사를 마치고 소화 시키고 장도 볼 겸 읍내 시장으로 간다. 시장 초입 파배기 튀기는 고소한 냄새가 발걸음을 멈추게 한다. 조금 있으면 학교 갔다가 올 아들이 생각난다. 사고 싶은데 사면 내가 많이 먹을까봐 고민이 된다. 나는 한입만 먹고 아들 다 주는 걸로 생각을 정리하고 3개 2000원 최소단위로 구입한다. 파배기 봉투만 봐도 보고 좋아 할 아들생각에 흐뭇해 진다.

마냥 좋은 시간, 식사시간. 작은 일에도 쉽게 토라져 버리고 마는 일상에서, 이렇게 평범한 음식이 위로가 되기도 한다. 내가 만든 음식이 아니 라서 마냥 좋게 느껴지는 걸지도 모르겠지만. 🐷



우리 결혼할 수 있을까? - 번외편

이벤트참여 원고#4

글 내려주세요. 이 분들 헤어지셨답니다.
2023년도인가? 우리 결혼할 수 있을까 라던가?
장기연애 커플얘기 그거 있잖아요.
제 지인입니다.
막 막역한 사이는 아니지만... 뭐 어쨌든

12년 만났다는 그 분들 결국에 헤어졌대요.
마지막에 다시 시작해보겠니 끝을 보겠니 어쨌니 하더니
아 그리고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양가 부모님께 인사 드리고 함께 살 집 구하더니
참 ㅎㅎ
겨우 1년 반 같이살고 헤어졌다고 하더라구요.

맞아요 아무도 안믿더라구요.
개네 헤어졌데
한두번이나? 개네 그래도 안헤어져 ㅋㅋㅋ
아니 이번엔 진짜던데?

그걸 어케아냐?

아니 이번엔 징징거리지 않더라고. 조용해. 이상하지 않아?

그러네... 개가 그럴애가 아닌데.

이상하더라고요.

그 여자에. 글 쓰던애 개는 뭐만 있으면 징징징징

술도 좋아해서 술 먹고 징징징징

그 애가 어쩔네 저쩔네.

나불나불대며 풀고, 또 다시 여기 휩쓸려 저기 휩쓸려 그냥 그런 팔랑거리는 애 었거든요.

이랬고 저랬고, 그래서 헤어질거야. 근데 또 자기가 그 애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애가 얼

마나 좋은 사람인지, 어떤 추억들이 있는지

나불나불대다가 ——

결국에 나중에 연락해보면 아무일 없던 듯 그냥 그 상태예요 개네는.

항-상. 12년동안 그 상태였다구요.

그런데 이번엔 한 동안 연락이 없어 먼저 연락해봤더니

뭐 별일 없대요?

그런데 또 이사를 했대요?

둘이 같이 살겠다고 양가 부모님 다 뵙고 설득하고

있는돈 없는돈 끌어모아 싸게나온 구옥 하나 전세로 구했다고.

드디어 자기도 전세 산다고 좋아했던 애가

일년반만에 또 이사를 했다니

이상해서 캐 물으니 헤어졌답니다.



그런생각이 들더라구요.

그렇게 헤어지네 마네 할 땐 나불나불 대던게

막상 진짜 헤어지니깐 부끄러운가 말을 안하네?

얘네 진짜 헤어지기가라도 하면 세상네상 난리칠 줄 알았더니..

뭐 자기도 속 썩었겠쥬.

아 제가 개 싫어하냐구요?

그렇리가요. 그냥 연민을 가지고 지켜보던 얇은 지인일 뿐입니다 ㅋㅋㅋ

어쨌든 논지 흐리지 말고 다시 얘기 이어나갈게요.

개네는 평생 못헤어진다 했는데 이번에 깔끔하게 헤어진 이유가 있더라구요

그 여자애가 혼자 여행을 다녀왔거든요 한 삼개월쯤?

그 둘은 이미 그 전에 헤어졌대요.

12년동안 도돌이표였던걸 아니깐 마음 단단히 먹고 떠난 모양이에요.

여행하면서 마음 정리 하고 왔다는데

그 후에 한국에 와서도 마음이 갈팡질팡 했대요.

그러다가 마음 굳게 먹고 헤어지고, 집도 바로 내놓고 이사하고...

그렇게 한 두 달 지났나

그 남자애가 아예 한국을 떠난거죠.

다른나라에 일 구해서 갔다는데

뭐 12년이나 만난 애랑 헤어졌으니 마음이 좋았겠어요?

한국에 있기 힘드니 떠나버렸나봐요.

그때야 비로소 헤어짐이 실감이 났대요.

개네는 하도 오래봐서 가족같은 사이라 헤어져도 야 얼굴보자 하면 또 만날 수 있었으니깐
그러다가 또 흐지부지 되는거고

그런데 이제 볼 수 가 없으니깐...

개네가 워낙 그래요.

그 둘이서 사람들도 잘 안만나고... 친구도 많이 없어요. 뭐 가족들한테 의지도 많이 안하고
그냥 둘이서 서로 의지해가면서 살던 애들이거든요.

가족같기도 연인같기도 친구같기도.

하긴 생각해보면 그래요. 12년동안 그렇게 둘만 붙어다녔는데 가족보다 더 의지했었나봐요.

그 여자애는 개가 아빠, 친구, 연인 다해줬대요.

그런데 아예 다른 나라로 간다니깐 ...

그 애 출국하는 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갑자기 세상에 혼자 남은 기분이었대요.

그래서 몇시간을 울었다는데

이해가 될거같기도 하고 또 뭐 그렇게까지 ㅎㅎ

뭐 암튼 그래서 한동안 힘들었나본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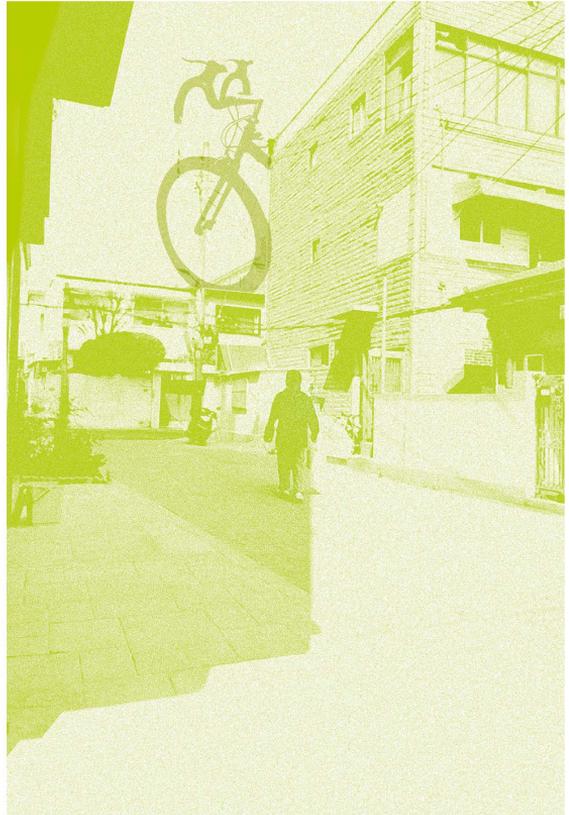
마음이 정말 많이 힘드니깐

오히려 사람들한테 얘기를 잘 안하게 된대요.

다 자기가 자초한거니깐

이렇게 힘들꺼면 헤어지지 말걸 그랬나?

자기는 아직도 그 사람 자체를 너무 사랑하는데



왜 헤어졌더라?

그렇게 긴 시간 이별을 준비해놓고도

헛갈리더라고요. 지가ㅋㅋㅋ 왜 헤어졌더라? ㅋㅋㅋㅋㅋ

(우유부단한 사람들의 연애란 이런건가요?)

그래서 아 안되겠다. 그 나라 가서 애랑 살아야겠다.

처음엔 그렇게 생각까지 했답디다.

그래서 한 동안은 매일 영상통화 했데요.

서로가 서로밖에 없었으니깐 ..

이게 또 문제가

여자가 퇴근할 시간에 그 남자가 바톤터치해서 출근하거든요 ㅋㅋㅋㅋ

시간도 잘 안맞고, 바쁘고.

그래서 매일 연락하던게 이틀에 한번

그리고 일주일에 한번.

살아가는게 다 그렇죠 모

내 생활 하다보면 또 무뎌지고 까먹고.

처음엔 아프다 생각했던 것도 나중에 익숙한 통증이 되듯이

뭐 마음아파도 어찌겠어요?

다 그렇게 사는거지.

그렇게 바쁘게 살다보니 어느 순간 그 애 옆에 있던 자기의 모습이 생각이 만나더라고요

점점 그 기억들과 추억들,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이 지워지는 것 같아 갑자기 무서운 생각

이 들어서

연락을 했대요.

그런데

오랜만에 얼굴보고 통화하는데도 덤덤하고 시큰둥한 그 애 모습에 마음이 아프더라.

근데 그 애가 그러더라.

이제야 너의 대한 것들이 휘발되는 것 같다. 자기는 많이 아팠고, 이제 괜찮다.

이기적이게도 또 그 말을 들으니 화도 나고 속상하더라구.

참 이기적이지 않나요 애? ㅋㅋㅋㅋ

그런데 또 그렇게 껍폭 맞으니 마음이 한결 시원해지더라고요.

우리는 이렇게 끝나는구나 하구요.

이게 정말 끝이구나.

그렇게 개네들 끝났어요.

신기해요. 개네 진짜 평생갈 줄 알았는데.

뭐 각자 결혼도 하고 가정도 꾸리고 잘 살겠죠.

다들 그러잖아.

뭐 드라마 주인공도 아니고ㅋㅋㅋㅋ

그토록 평범한 지나치게 평범한 인간들인걸

암튼 그 친구들 기억하실진 모르겠지만 궁금하실까봐

대신 전합니다.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해피엔딩이나 배드엔딩이 아닌 그저 현상에 대한 이야기인 우리 결혼할 수 있을까. 진짜 끝.

우리 결혼할 수 있을까_ 에필로그

영화 기생충

기생충 영화기법이 예리하다고 했어. 경계와 경계간의 대립과 대비되는 구도를 잘 썼다고 하더라. 너랑 내가 물리적으로 떨어지던 날. 나는 이사짐 차를 기다리면서, 너는 친구를 만나러 가던 순간 내 눈엔 경계가 보이더라.

광명에서 사무실로 다닐때 항상 가는길에 전봇대에 자전거가 세워져 있더라. 자전거를 어느 정도 알고 있어서 그런가 이상하게 하늘로 솟구치게 조정된 핸들바와 브레이크가, 기이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웃기게 세팅되어 있더라.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라면 놀랄만한 세팅이었지. 너는 모르는거 같더라 ㅎㅎ

이 자전거를 타는 사람은 잘못될걸 아는지 모르는지 알 수 없지만 그래도 그냥저냥 타고 다니면서 그런대로 살아가고 있겠지 지금도. 그런 생각을 했어. 너가 핸들을 몰라보듯 그냥 같이 소소하게 살았으면 어땠을까.

암튼 글은 너가 쓴건지 오작가가 쓴건지는 모르겠지만 잘봤어. 현실적이고 우리도 평범한 사람들이네 ㅎㅎ





표지이미지 :

겨울이라는 단어로 떠오르는 음식이야 많겠지만 살이 통통하게 오른 대방어를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다. 두툼한 붉은 살에 가득 찬 기름기는 그 어떤 고기보다 진한 여운을 가져다 준다. 물론 느끼 하거나 기름진 음식을 싫어하는 사람에게 는 호불호가 있으나, 정말 맛있는 대 방어를 와사비나 기름장에 찍어 백김치 나 김과 싸먹으면 맛없다는 경우를 거의 보지 못하였다. 얼마나 먹을 수 있는 냐의 차이일 뿐.

원래 대방어라는 생선은 없고, 방어가 겨울철 살이 두툼하게 오르는 것을 대 방어라고 부른다고 한다. 제대로 먹으 려면 근 10kg이상의 방어를 잡아야 한 다는데 막상 한 마리를 통째로 잡는 일 은 여태 없어서, 그냥 회 한 접시에 나오 는 것을 믿고 먹는 정도이다.

대방어를 먹을 때 다소 저렴한 것을 사 다 먹으면, 잡은 지 오래되거나 별로 좋 지 못한 생선이라 비리고 냄새도 별로 인 경우가 있다. 그래서 한 번 먹을 때 일행과 돈을 모아, 가격이 있더라도 제 대로 먹는 것이 나왔다.



<월간 피그헤드랩> 및 관련한 모든 콘텐츠 저작권은 피그헤드랩(pigheadlab)과 편집자, 개별 콘텐츠 당 창작자에게 있습니다. <월간 피그헤드랩>내 콘텐츠 사용, 문의 등은 우선하여 피그헤드랩에 연락을 주시길 바랍니다. <월간 피그헤드랩>은 새로운 필진을 환영합니다.

월간 피그헤드랩 Monthly Pigheadlab_2025. 1 / 30호

발행/편집 : 오종원

발행처 : 피그헤드랩 pigheadlab(www.pigheadlab.com)

웹사이트 내 PDF로 관람 가능, 문화공간 대상 무료 배포

문의 : pigheadlab@gmail.com / 01082339033

이번 달 참여 필진 : 김가영, 고마니, 석민지, X, 익명 4인